

# '흙 속의 진주' 전남 도자기 글로벌 브랜드로 빛어내다

## 목포대 헬스케어도자명품화사업단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세업체 물심양면 지원  
첨단·명품 도자기 재탄생...매출·고용창출 이끌어

국내 최대의 생활도자기 클러스터인 전남 서남권이 목포대 헬스케어도자명품화사업단(이하 HELP사업단)의 지원으로 고기능성 헬스케어 명품 도자기 단지로 재탄생하고 있다.

클러스터내 영세 생활도자기 업체들이 목포대 HELP사업단의 지원으로 도자기에 헬스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명품 도자기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도자기업체로 변신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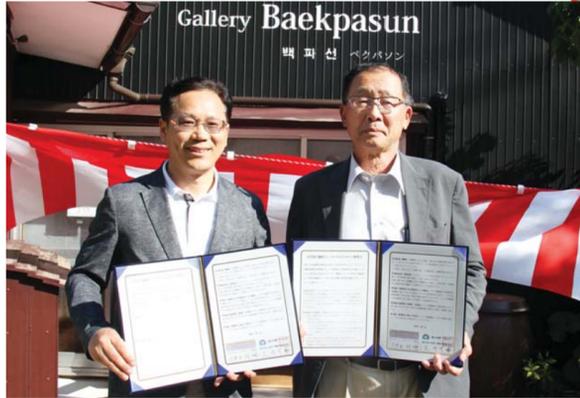
이같은 성공은 목포대 HELP사업단이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기 때문에 가능했다. 목포대 HELP사업단은 정부의 풀뿌리기업육성사업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3년 과정으로 '헬스케어용 생활도자기 및 지역 도자산업 명품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비 16억 원을 포함해 전남도·목포시·무안군·강진군 등 지자체 출자금 등 총 23억 원이 투입된다.

HELP사업단은 고부가가치 도자기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R&D와 비R&D 연계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도자 브랜드를 갖춘 스타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년 동안 에릭스 등 7개 기업에 3억3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헬스케어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의 명품 도자기 제품 생산을 이끌어 냈고 4억8000만원을 들여 52개 업체에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했다.

그 결과 2016년 443억원이던 무안군 전체 도자기 매출을 사업 첫해인 지난해 460억원으로 늘리는데 기여했다. 메종오브제라는 업체는 32억원이던 매출이 80억원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또 은가비·나래모아 등 3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른 분야는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6명의 고용증가를 이끌어 냈다.

해외 마케팅 강화로 일본



조영석 목포대 HELP사업단장(왼쪽)이 지난 5월 일본 아리타에서 백파선갤러리 구보다 히로시 관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포즈를 취했다.

이나 유럽 등지에서 명성을 높여가는 업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친환경식기의 선두기업인 테라세라믹(대표 정영우)은 고품질의 신비로운 색채 도자기로 올해 해외박람회 나가 독일과 스페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HELP사업단은 특히 지난 5월 일본 도자의 본산지인 아리타지역의 도자업체와 MOU를 맺고 기술개발 및 수출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지역 업체들의 일본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HELP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목포대 조영석 교수(금융보험학과)는 "헬스케어용 도자기는 친환경·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맞고 해외 브랜드와 경쟁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다"며 "맞춤형 지원으로 전남 서남권 도자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 및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 기자 bungy@

## 전남 서남권, 국내 최대 생활도자기클러스터

### 흙·땀감 풍부하고 유통망 갖춰...목포·무안 80곳 성업

전남 서남권은 도자기산업 발전을 위한 전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원재료인 흙과 땀감이 풍부하고 생산품의 이동 경로인 영산강이 있어 목포와 무안을 중심으로 30분 이내 거리에서 양질의 원재료와 요업 기계, 유통망을 가동할 수 있다.

한국 최초의 생활도자기가 1942년 목포의 행남자기에서 시작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전 공정 일관체계'라는 최적의 입지를 활

용해 1980년대 이후 무안 청계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전국 최대의 생활도자기클러스터가 형성됐다. 현재 이곳에는 도자관련 업체만 80여개가 성업중이고 근로자 10명 이상 업체의 절반가량이 무안에 있다. 특히 도자기 생산업체 상위 70%가 영산강 도자클러스터에 밀집돼 있다.

전남 서남권이 국내를 대표하는 도자클러스터로 성장한데는 천혜의 자연 조건외에 점

단기술 개발 및 이전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클러스터 권역내에는 목포대를 비롯해 5개 종합대학과 2009년 설립된 전남세라믹종합지원센터가 있다. 세라믹지원센터는 전통 도자기기술과 첨단 세라믹의 융합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목포대 HELP사업단이 가세하면서 생활도자기에 헬스케어 기능까지 더한 첨단 도자기 제품 생산으로 전남 서남권이 생활도자기 메카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장필수 기자 bungy@kwangju.co.kr

## 헬스케어도자 선도기업 '(주)에릭스'

### 치유하는 도자기 '힐링요'

1350도 최첨단 가마·세계 첫 원적외선 발열도자기 개발

(주)에릭스(대표 이오훈)는 '치유하는 도자기'라는 일명 '힐링요'(Healing+요)를 개발한 대표적인 헬스케어 도자기 업체다. 국내 최초로 유럽 최정상 가마와 맛먹는 1350도의 최첨단 소성터널가마를 개발했다. 특히 목포대 세라믹산업기술연구소와 협력해 10여년간 1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세계 최초로 원적외선 발열도자기를 개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마이크로파를 생육광선(생명을 이로운 원적외선)으로 전환한다는 이론을 접목해 치유를 돕는 힐링도자기를 제품화 한 것이다. 이를 인정받아 2012년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함께 한국을 빛낸 '도전 한국인' 대상(기업부문)을 수상했고 올해는 청와대 납품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주력 제품은 힐링요 조리기와 찜질기(사진)로 한국·일본·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발열도자기 기술을 적용했다. 조리기와 찜질기 모두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편리성과 원적외선 방출로 건강에 이롭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찜질기는 체온 상승과 통증 해소, 독소 분해, 면역력 향상 효과가 탁월해 건강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에릭스는 '꽃보다 힐링' 이름의 식당을 목포 산정동과 광주 각화동에 개설하고 힐링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생활 속 예술 '맘키드크래프트'

### 영국 최고 백화점이 인정

전통 이미지 현대적 가치 재창조...세계 속 한국 알려

맘키드크래프트(대표 김명효)는 '생활 속의 예술과 예술 속의 삶'을 동시에 추구하며 국내 도자공예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기업이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당시 한국관광기념품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이 제품이 장관 기념품으로 선정된 이후 국제행사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 회사 제품은 2011년 11월부터 대영박물관의 고급 기념품 가게에서 전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상감청자를 현대화 한 2000만원 짜리 '명공 만년필' (사진)은 장인정신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영국 최고급 해롯백화점에 입점했다.

최근에는 훈민정음, 아리랑, 민속화 등 한국의 전통 이미지를 현대적 가치로 재창조해 문화 상품화 하고 있다. 이들 전통 이미지를 모티브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한국 문화의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삼성, LG, 현대, 신라호텔, 삼성문화재단 등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는 물론 한국관광공사,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재단 등 공기업이다.



## 이제는 빛으로 조리하세요

힐링요는 간편하다. 맛있다. 건강하다.



'힐링요' 모델 이상민

이승민의 집에 있는 힐링요

힐링요 HEALINGYO

### 힐링요란?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를 빛(생육광선)으로 변환하는 노벨물리학상의 원리를 제품화한 [한국·중국·일본 발명특허 획득] 전자레인지에 특화된 기능성 조리기이다



강자성 발열체가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를 흡수하면 자기공명을 일으켜 빛(생육광선)으로 변환하여 방사

강자성 발열체가 마이크로파를 흡수하면 다량의 빛(생육광선)을 방사